

명실상부한 유학의 산실 '훈몽재'

중국 남창대학·과기학원 교수와 학생 총 35명... 28일까지 7박 8일 일정 전통유학 강독

순창군 쌍치면에 위치한 훈몽재에 중국 교수들과 대학생, 교수들이 찾아 훈몽재가 명실상부한 유학의 산실로 재 조명받고 있다.

이번 방문단은 중국 남창대학과 과기학원 교수와 대학생 총 35명으로, 오는 28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훈몽재에 머물게 된다.

이번 방문은 문화교류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행사다. 특히, 작년에는 남창대학 교수 및 학부생들만 방문했지만, 올해는 남창대학 뿐만 아니라 과기학원까지 참여해 인원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중국의 유명대학에서 훈몽재를 찾은 이유는, 중국의 유학역사가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과거 유학관련 중요 서적과 기록물 등이 상당부분 유실돼, 정통 유학의 맥을 잇고 있는 훈몽재에서 유학의 뿌리를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훈몽재가 국내를 넘어 국제적 유학교육의 산실로 인정 받고 있는 것.

남창대학과 과기학원 일행은 훈몽재에 머무는 동안 김충호 신장으로부터 대표적인 유학자인 인 주자, 이이, 맹자 등의 저서들을 직접 배운 예정이며, 이외에도 다도체험, 선비 관련 가무와 음악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훈몽재는 2009년 중견 이래 국내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생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유학교육을 이어와 한국을 대표하는 유학교육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중국까지 훈몽재와



중국 남창대학과 과기학원 교수와 대학생들이 훈몽재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순창군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순창 훈몽재는 조선 유학의 큰벌 하서(河西) 김인후 선생이 1548년에 순창 점안촌 백방산에 지은 강학당이며 2009년 순창군이 하서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예절, 유학 등 전통문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증건했다. 최근에는 훈몽재를 시작으로 쌍치면 문전리부터 북송면 하리까지 6km 도보여행 코스인 선비길도 조성해 찾는 이들의 마음까지 힐링할 수 있는 도보 여행 코스로도 사랑받고 있다.

/순창=이영원기자

정읍 기적의도서관, 내일 '한권의 책 저자와의 만남' 진행

정읍기적의도서관(이하 도서관, 이하 기적의도서관)은 25일 오후 2시 '2018 한권의 책 저자와의 만남'을 갖는다.

기적의도서관은 "2018 정읍시 한권의 책" 아동도서로 선정된 '비확인 바이러스트'의 저자인, 정읍 출신의 이리야 작가를 초청해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행사는 작가의 기타 공연을 시작으로 강연과 가족과의 즉석 대화, 도서관에서 작가 되어보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자들에게는 선착순으로 저자 사인이 담긴 예코백과 도서를 증정할 계획이다.

한편 기적의도서관은 시민들의 책 읽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18 한권의 책' 독서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관련해 지난 3월 선포식을 가진데 이어 7월에는 1박 2일의 청소년연합독서캠프도 진행했다. 이어 내달 8일에는 중학생 책모임 동아리 연합 독서캠프를, 11월에는 문학기행도 가질 예정이다.

기적의도서관 관계자는 "범시민 독서운동인 '한권의 책'은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기적의도서관이 25일 오후 2시 '2018 한권의 책 저자와의 만남'을 갖는다. 사진은 작년 북콘서트 자료사진.



남원공용버스터미널이 문화터미널로 탈바꿈한다. 사진은 남원문화터미널 조감도.

'지역의 수준 높은 문화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

남원시, 공용버스터미널 문화터미널로 변신 시켜

남원시는 공용버스터미널에 대한 환경 개선과 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한편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관광도시 남원을 알리고 산뜻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문화터미널로 탈바꿈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총사업비 2억5천만원(도비 1억원, 시비 1억5천만원)을 들여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아트공간조성사업(문화터미널 남원)을 체결하고 9월 말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사업에서는 낡은 화장실과 각종 시설들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고, 터미널의 자투리를 알차게 활용해 시민들이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소규모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밴드, 판소리, 무용 등 지역의 문화예술가들이 터미널 이용자와 시민들에게 자신의 솜씨를 맘껏 자랑하고 뽐낼 수 있다.

남원시는 이 같은 예술인들의 소규모 공연과 활동이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관광객들에게는 남원의 수준 높은 문화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남원시는 문화터미널을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 휴식과 공연 등 터미널에 머무는 동안 시민들이 새로운 활력을 찾고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터미널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남원=김기두기자

익산시, 변사 최영준과 함께하는 3주간의 추억여행

익산시가 익산역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진행하는 한여름 밤 무성영화 상영회에서 나운규의 아리랑, 검사와 여선생에 이어 25일 토요일 밤 8시 마지막 3탄인 이수일과 심순애로 여름밤 추억여행을 선물한다고 밝혔다.

상영작 이수일과 심순애는 1913년 발표된 '장한몽'이라는 소설을 영화화하여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로 더욱 유명한 작품으로 마지막 변사 코미디언 최영준의 변사극으로 펼쳐진다. 또한 추억의 무성영화 상영회에 앞서 오후 6시부터 버스킹 공연, 교복체험, 공방체험, 푸드트럭 등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 먹거리로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즐거움을 선사

한다. 시 관계자는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길었던 여름의 마지막 더위를 추억의 변사극과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날려버리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가 어르신들에게는 아련한 추억과 향수를, 젊은이들에게는 뜻깊은 문화행사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주간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펼쳐진 무성영화 변사극은 다양한 목소리로 영화를 이끌어가는 최영준 변사의 목소리와 추억을 가득 담은 흑백화면의 협연에 몰입하며 여름밤의 더위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며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익산=우병희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